**2023. 5. 2. [보도자료]**

|  |
| --- |
| **美 선도기업 플러그파워, SK E&S와 兆단위 국내 투자 ‘수소 세계 1등 대한민국’ 비전 가시화된다**  - 합작법인 ‘SK 플러그 하이버스’ 통해 1조원 투자…연료전지·수전해설비 기가팩토리 및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본격화 - 플러그파워의 차별적 기술력 활용해 국내 수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핵심기술 국산화, 수출산업화 기대 - 플러그파워 “한국은 수소산업 선도 국가...수소를 국정과제로 정한 한국 정부의 육성 의지 믿어” |

SK E&S가 미국의 대표 수소기업 플러그파워(Plug Power, 이하 ‘플러그’)\*와 함께 수소설비 생산기지 ‘기가팩토리(Giga-factory)’ 건설 등 국내 수소산업에 총 1조원을 투자한다.

SK E&S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투자신고식’ 행사에서 플러그와 이 같은 내용의 합작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플러그를 포함해 한국 투자를 결정한 6개 미국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SK E&S와 플러그는 지난해 설립한 합작법인 ‘SK 플러그 하이버스’(SK Plug Hyverse)를 통해 총 1조원을 국내 수소산업에 투자한다. 합작법인 지분율에 따라 SK E&S가 5100억원, 플러그가 4900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정부의 적극적 육성 정책에 기반한 한국 수소시장의 잠재력과 SK E&S의 차별적 경쟁력이 양사 간 협업을 가능케 했다는 평가다.

이번 합작투자는 수소 분야에서 이뤄지는 한·미 기업 간 대표적 비즈니스 협력 모델로 평가받는다. 플러그가 보유한 수소분야 첨단 기술력과 SK E&S가 오랜 시간 축적해온 에너지 생산, 유통, 판매 역량이 만나 글로벌 수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SK E&S 측은 “국내 수소산업을 향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키우는 등 정부의 국정과제인 ‘수소산업 1등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 수소설비 생산기지 ‘기가팩토리’ 구축>**

양사의 이번 투자금은 국내에 건설되는 ‘수소기술 R&D센터 및 기가팩토리’ 구축에 투입된다. 기가팩토리는 차량용·발전용 수소연료전지와 수전해설비 등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수소 핵심설비 생산기지’로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제품 양산을 본격화해 국내 및 아시아 시장에 공급한다. 이 곳에서 생산되는 수소연료전지와 수전해설비에는 플러그의 핵심기술이 적용돼 수소 분야 첨단기술의 국산화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기가팩토리에서 만들어지는 수소연료전지는 SK E&S의 ‘보령 블루수소 생산기지’에서 2026년부터 생산될 블루수소를 연료로 하는 청정수소 발전 사업에 활용, 청정수소 생태계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SK 플러그 하이버스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필수 설비인 수전해설비를 생산·공급해 국내 그린수소 시대를 앞당기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이다.

**<국내 액화충전소 구축·운영…’수소경제’ 가시화된다>**

SK 플러그 하이버스는 국내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운영 분야에도 투자한다. 전국 주요 지역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원활한 액화수소 공급과 인프라 조성을 통해 수소 모빌리티 확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와 비교해 대량 운송과 빠른 충전이 가능해 수소 유통·저장 방식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SK E&S는 올해 말부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에서 액화수소 연 3만톤을 생산하고, 2026년부터는 보령 블루수소 생산기지에서 연 5만톤을 추가 공급하게 된다. SK E&S가 생산한 액화수소는 SK 플러그 하이버스가 구축·운영하는 액화수소 충전소를 통해 수소버스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의 연료로 공급돼 ‘수소경제’ 현실화를 앞당길 예정이다.

조지 맥나미 플러그 이사회 의장은 “한국은 수소산업 선도 국가로, 수소를 국정과제로 육성 중인 한국 정부의 선구안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SK 플러그 하이버스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 한국은 아시아 수소 시장의 수출 허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사장은 “플러그와의 이번 공동 투자는 한국 수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선진 기술을 적용한 보령 블루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를 조기 조성하고, 한국이 전세계 수소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플러그**  
: 수전해 방식의 그린수소 생산부터, 액화수소 충전 등 유통, 연료전지를 통한 활용 분야까지 청정수소 산업 전 생태계에 걸쳐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현재까지 세계 최대 규모인 6만개 이상의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과 200개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했으며, 2025년까지 일 500톤의 액화 그린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텍스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 보도자료 외 SK E&S의 다양한 소식들은 'SK E&S 미디어룸'(<https://media.skens.com>)과 ‘SK E&S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SKENSTV>)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